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긴 겨울 가뭄을 해갈하는 눈과 비가 내려 봄을 예비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때묻은 우리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굳어진 우리 마음의 지각을 말씀의 쟁길날로 갈아엎어 주십시오. 북한의 핵 보유 발언으로 한반도에 또 다시 드리워진 전쟁의 어두운 먹구름 너머에 있는 평화의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재미있는 말, 재치있는 말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정이 담긴 말, 참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노로 삼아 영원의 뱃길을 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9:21 인도자

♣ 교 독 문 2. 시편 2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72. 빈 들에 마른풀같이 다함께

성경봉독 I. 마11:25-30 인도자

II. 렘28:1-9 이영란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쉬운 명예 김재흥 목사

II. 예언자 김기석 목사

거듭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단호히 참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부둥켜안으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힘들거울지라도,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압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어김없이 다시 일어나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하나뿐인 지구	신명기 강해(32)
쓰레기 제로 운동	기도 : 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김지호 선생 윤정덕 장로	인도자 하현철 권사

2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준호 김 극 김필순 장혜숙 안경숙
	헌금위원	강인식 박창운 김용진 곽혜자 김명순 최숙화

아름다운 퇴장

지난 월요일 거창고등학교 도재원 교장선생의 정년퇴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진실한 한 인격이 걸어간 독실한 삶의 자취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는 퇴임하는 이에 대한 상찬의 마당이 되기 마련인데, 그 퇴임식은 어느 퇴임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흔한 축사 하나 없는 어찌 보면 썰렁한 퇴임식이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던 전성은 교장이 지난날의 고초를 떠올리며 잠시 목이 메었고, 축도를 한 유보성 목사가 하나님의 머슴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다가 울먹인 것을 제외하면 매우 차분한 예배였습니다.

퇴임사를 하러 나온 도재원 교장은 잠시 어색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생활신조랄 것도 없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말자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임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세 아들에게도 이런 일 때문에 직장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을 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창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만나게 된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르친 것을 한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A man ought to be~”. 그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다운 사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줄 아는 사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에게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 귀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곁에 있는 사람도 그에 못지 않게 귀한 것을 알고 살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는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린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마16:24),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마6:33)는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1980년에 신군부가 권력

을 장악하고 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라는 압력을 가했을 때에 “우리 학교에는 그런 불량한 학생이 없다”며 당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지 강압이 아니라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말씀대로 살려는 소박하나 굳은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소망한 것은 예수 사랑, 학생 사랑, 성경에 입각한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의 중추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웃으려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늘 웃음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고 말하다가 잠시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퇴임을 하면서 아쉬움은 없지만, 다만 늘 웃으면서 만날 수 있던 학생들과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정을 알기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퇴임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면서 바울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고전15:10)

의례적인 절차로 지루할 수도 있는 모임이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언의 장이 되었습니다.

연못을 지나다가 연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나는 탄성을 질렀다.

“아 연꽃, 너는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그러니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랴!”

자기가 것처럼 아름답다고는 일찍이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연꽃은 수줍어 낯을 붉혔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미 받으심을 반가워했다.

그 연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의식하지 않고 있기에 더욱 사랑스러웠다. 또 내 눈길을 끌려고 한 일이 없기에 나에게 더욱 매력이 있었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남에게 멋진 인상을 안겨주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 돌이켜 스스로 충실하려 한 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가!(석)

▣ 마/음/으/로/읽/는/글

봄 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신동엽)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조관행 홍선희 이한림 김명희 김용진 박효선 박애순 임창선
박옥순 이유선 방극속 노용래 차혜심 박경원 영혜영

월정헌금:

윤성중 김윤정 김남중 오복순 최주환 문복순 이갑재 전영규 김경수
김정섭 노미향 조향신

감사헌금:

양재성 최인환 영혜영 이재문 김순복 김용진 박효선 안길상 이형숙
이호원 방정자 조관행 홍선희 방정열 김수빈 무명3

생일감사헌금: 한지희 한인철 정두리

구도헌금: 김기석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오 송 경	최 희 영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박 흥 업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정 복 순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진 정 속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순 복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속	이 순 정	장 혜 속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명 희	구 성 실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구 명 자	안 흥 속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백 혜 속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속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셋째 주일 오후집회는 동교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토회'의 '쓰레기 제로 운동'을 소개하는 EBS의 환경프로그램을 시청하겠습니다.
2.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3.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내일(21일) 오전 9시 30분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윤정덕·강인식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고, 윤석철 장로님의 안수식, 그리고 방문성·한상익 권사님의 장로 파송이 있습니다.
5. **아름다운 원로모임** : 2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6. **교사수련회** :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이들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21일)까지 용인에서 기도회를 겸한 수련회로 모입니다.
7. **겨울성경학교** : 유치등부 겨울성경학교가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8. **신앙실천** :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제로 운동' 방안을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표를 마련해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은 청빈한 삶과 떼어 놓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한인철, 김대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